

KSUM 2026

THE 57TH ANNUAL CONGRESS OF
THE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

MAY 7 (THU) - 8 (FRI), 2026 | COEX, SEOUL, KOREA



Speaker : Eun Sun Lee

Affiliation : Chung-Ang University Hospital

Lecture Title : 초음파 검사의 인증-교육시스템의 현재와 한계: 전문성의 강화 관점에서

PT_No. : 포럼-S2

1. 초음파 인증의 제도 현황

- **제도의 목적:** 적절한 수련을 받은 의사가 검사와 판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초음파 검사의 **질적 수준**을 담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- **주요 인증 주체:** 대한초음파의학회, 대한임상초음파학회, 한국초음파학회, 대한내과학회(소화기학회·간학회 공동), 대한심초음파학회 등 각 분과 학회별로 인증의 제도를 운영되고 늘어나고 있음.
- **자격 구분:** 크게 **검사 인증의**와 이들을 교육할 자격을 갖춘 **교육(지도) 인증의**로 나뉨.
 - **취득 및 갱신 기준:** 학회별로 각기 다른 조건

2. 초음파 교육 시스템 현황

- **이론 및 실기 교육:** 학술대회 내 연수 강좌와 더불어, 실제 검사 술기를 익히는 **핸즈온(Hands-on)** 코스 운영
- **교육(지도)전문의 제도:** 상급 의료기관이나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및 펠로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
- **병원 인증:** 인증의가 상주하며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'초음파 진료 우수병원'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유도

3. 현행 시스템의 한계점

- **차별성 부재:** 인증의와 비인증의 간에 실제 진료를 하는데 있어 차별점이 없음. 현 제도로는 비인증의 심지어 비의료인(sonographer)도 감독하는 의사가 있다면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음.
- **학회별 파편화:** 여러 학회에서 독자적으로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, 학회 간 인증 기준이나 평점 인정 범위가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.
- **실기 교육의 물리적 한계:** 이론 교육에 비해 **핸즈온 코스**는 소수의 인원만 참여 가능하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, 지방 거주 의사들의 접근성이 낮음.
- **갱신 제도의 실효성 문제:** 갱신 요건이 주로 평점이나 검사 건수에 치중되어 있어, 실제 판독의 정확도나 질적 수준을 실질적으로 재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4. 향후 과제

- **표준화된 가이드라인:** 학회 간 통합된 교육 커리큘럼 및 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.
- **디지털 기술 활용:** VR/AR 기반 초음파 시뮬레이터나 온라인 실기 교육 콘텐츠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.
- **체계적인 질 관리(QC):** 단순 평점 이수를 넘어, 실제 케이스 판독 리뷰 등 실질적인 역량 기반 갱신 시스템 강화.